

“만남·상생의 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월14일 지리산권 순례 마친 생명평화 탁발순례단



도법(왼쪽)·수경(오른쪽) 스님을 대표로 하는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이 4월14일 남원에서 45일간의 지리산권 순례를 마쳤다. 탁발순례단이 남원 '만민 의사 순의탑'에서 정유세때대 회상당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순례도로·지리산통합문화권 등 대안 제시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생명과 평화를 구걸하고자 길 떠났던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 스님)이 4월 14일 남원에 입성했다. 순례시작 45일째이자 지리산권 탁발순례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다.

이로써 지리산 노고단에서 탁발순례시작을 고한 뒤, 구례-하동-산청-함양을 거쳐 남원에 이르기까지 지리산을 빙 둘러 한바퀴 돌았다. 하루 40리씩 족히 1500리 길을 걸었다. 매일 50여 명씩, 주말에 달게는 500여명을 만나 생명평화 결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람은 역시 걸어야 합니다. 실상사 주지로 살 때보다 몸무게가 더 늘었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이날 순례단을 만난 것은 남원 초입 반박사지였다. 점심공양 후 남원지역 단체장, 신도들과 간담회를 갖는 도법스님에게 건강을 챙기자 “이보다 더 건강 할 수 없다”며 미소를 보인다. 그렇지만 석탑 그늘에 누워 오수를 즐기는 수경스님, 여기저기 각자가 편한 대로 자리를 잡아 휴식을 취하는 진행요원들의 남무한 모습이 오랫동안 길에서 살고 있는 순례단이다.

지난 45일, 어찌 보면 무작정 떠난 길이기도 하다. 매일 먼단위 마을에서 마을로 걸어가며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생명평화를 설명하고 평화결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탁발의 길,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끝을 알 수 없는 길에서의 생활이기에 무모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45일간 1500리 하루 50여명씩 만나 농촌붕괴·환경파괴 현장 안타까워 22일 제주로 이동 남쪽 순례 본격화

그래도 지리산권 순례를 마치고 나니 앞으로 순례단이 해야 할 일, 함께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한다.

도법 스님은 “실상사에서는 찾아가 만나서 과정이다”고 말한다. “길을 걸으면서 자기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만나고, 지역현장에서는 지역인과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순례길에서 만난 것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탁발순례단이 만난 현장은 절망스러웠다.

“농촌의 붕괴가 참담할 정도예요. 마을마다 나이 50대가 막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개발논리에 빠져 있는 단체장들로 인해 환경파괴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탁발순례단 총괄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규 시인은 “앞으로 5년 후면 땅이 있어도 노동력이 없어 농촌이 무너질 것 같다”며 안타까워한다. 3000여명의 농촌마을에 초등 학교 입학생 4~5명꼴로 농촌의 공동화로 인해 나라의 기

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순례단 살림을 맡아 이끌면서 이원규 시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고와의 전쟁’이다. 길이 없었다. 지리산을 둘러 길이 있으며 사람이 아닌 차가 다니는 길이였다. 때때로 폭 70cm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지만 대형트럭이나 고속도로 다니는 차량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 있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지리산 자락을 도보로 순례할 수 있는 ‘순례도로’ 개설을 건교부장관에 제안했다. 이 길은 예전에 있었던 농로, 강둑길, 오솔길로 이어지는 ‘사람의 길’로 최근 건교부에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시, 군 단체장들을 모두 만나 ‘지리산통합문화권’을 제안했다. 생태의 보고인 지리산을 ‘최소 개발로 보호하고 생태관광으로 유도하자’는 지리산통합문화권은 탁발순례단의 조율에 단체장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먼저 구례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 설치문제와 관련해 남원시장과 구례군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단체장에게 제시했다.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1861년 지방도) 양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나 무공해 모노레일을 설치해 차량운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주차장에 차량을 두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져 지역민들의 관광수입에도 효과적이다. 이 제안은 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합의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갈등해소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종교 간의 갈등은 감내하기 어렵다. 탁발순례길에 기독교 교회와 원불교 교당에서 몇 밤을 의탁했지만 몇몇 성직자들은 교당 침재마저도 거절하곤 했다.

그래도 합양성당에서 순례단이 주일미사를 함께 하며 도법스님이 생명과 평화에 대한 강론을 한 뒤 미사헌금 절반을 생명평화 기금으로 받는 즐거움도 있었다.

이날 ‘머질만’하고 떠나갔다가 남원까지 함께 탁발길에 나섰던 박남주 시인이 지리산권 회향을 기념해 시를 낭송했다.

“...이 길, 생명평화 탁발순례의 길 / 넘치고 남는 것을 탁발하려는 것이 아니네 / 풍 한 톨, 쌀 한줌 같이 나누려는 / 그 함께 하려는 마음을 탁발하려는 것이네 / 지상의 모든 생명을 품어 깨어나게 하는 / 어머니, 대지의 너른 품안을 탁발하려는 것이네...”

이제 순례단은 4월 22일 4·3의 아픔이 남아있는 제주도로 떠난다. 한 달간 제주도 한라산 자락을 돌고 다시 남쪽에서부터 본격적인 생명탁발의 길을 떠난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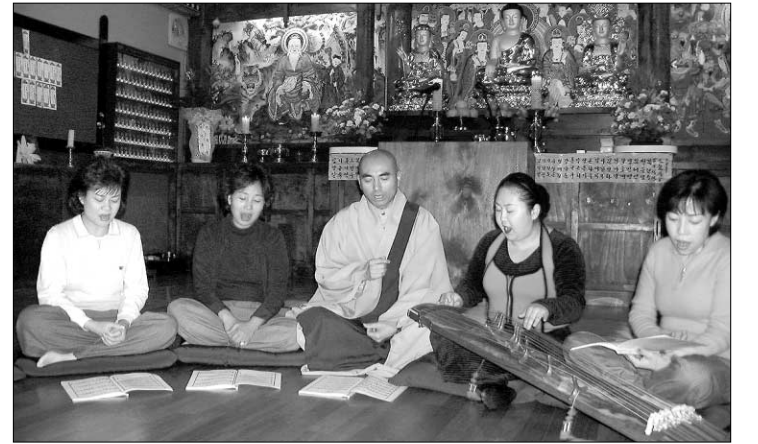
지리산권 순례는 4월14일 남원 만민 의사 순의탑에서 침묵의 명상과 생명평화의 경 독경으로 마무리 됐다.



지금, 우리 곁에서는...

서울 화곡동 대각정사

도심속 전법도량 묵 ‘톡톡’



대각정사 주지 해각 스님과 불자들이 김혜은 씨의 가야금 연주에 맞춰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 2동에 위치한 대각정사는 대각종(총무원장 만철)의 서울지역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법도량이다.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어 열린 눈에 띄지는 않지만 화곡동 지역 주민에게는 친근한 이웃이다.

대각정사는 2003년 7월 창건된 전형적인 도심포교당이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각정사는 요즘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무료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불교와 대중을 알리고 있는 것이 인기 비결이다. 인근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진 것이다.

교양대학에 처음 문을 연 창건 1년, 무료교양대 운영하며 유명 열자마자 수 백련봉사회 주축 신도간 유대 돈독 178명이 있는 날이면 불자들의 열기가 법당에 가득하다.

건물 앞을 지나다가 절에서 들려는 소리치고는 ‘심상찮은’ 가야금 가락에 한번쯤 울려다보게 하는 것도 대각정사만의 또 다른 특징이다. 대각정사에서 울려 퍼지는 가야금 연주 소리는 화곡동의 명물이 됐다. 가야금 연주의 주인공은 이화여대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 김혜은 씨.

김 씨는 친구 따라 대각정사에 왔다. 주지 해각 스님의 ‘소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접하고 가야금 연주를 자청하게 됐다.

김 씨는 “가야금 연주에 맞춰 부르는 찬불가는 피아노 반주도 찬불가를 부를 때보다도 경건하면서도 흥을 돋

구기 때문에 불자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소문을 듣고 찬불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불자들도 많다”고 말한다.

대각정사는 교양대학이나 각종 봉사활동, 농장 등 사찰과 신도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신도회와 백련봉사회가 전담한다. 이는 신도들의 참여도와 주인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신도들의 신행이 더 적극적이 되었다.

특히 백련봉사회는 신도 가운데 어린산끼리 사는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 청소에서부터 이사, 김치 담

기 등 작은 일이라도 보태는 활동을 펼쳐 신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포에 마련된 5백여 평 규모의 농장 관리도 봉사회 일종의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작물은 불우이웃과 어려운 신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는 신도간 유대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주지 해각 스님은 대각종 서울교구 총무원장을 겸하고 있다. 스님은 대각종의 서울지역 포교도량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사찰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 해각 스님과 신도들은 한발 한발 내딛어 가고 있다.

주지 해각 스님은 “간절한 원력과 실천만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02)2699-6384 박봉영 기자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오실근,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시시오! 성심성의껏 자세이 설명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서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질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 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집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엔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거나 가우스(세기)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며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체식,계면,계면)의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홍현외)

나 자신의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자금이 돈으로 가스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었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탈 종 공 고

- ◇ 사찰명 : 효성사 ◇ 주소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870-1
- ◇ 사찰명 : 성북암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84-7
- ◇ 사찰명 : 연화사 ◇ 주소 : 경기 포천군 소흘읍 2가 8리 433번지
- ◇ 사찰명 : 대성암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85-9
- ◇ 사찰명 : 청간사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8-23호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